

■ 연구원 회원 소식

전병구 박사 성심여자고등학교 정년퇴임



우리 연구원 특별연구원인 전병구 박사께서 33년간 온 마음을 나눴던 교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청춘을 고스란히 던진 우직한 발걸음이셨습니다. 비록 중고등 학생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내려오셨지만 역사 연구자의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역사 연구자의 길에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계신 전병구 회원의 건안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퇴직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연구원으로 오셔서 책상도 다잡으셨으니 언제라도 연구원으로 오시면 소년같은 미소를 날리시는 전병구 박사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인문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강좌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온라인 실시간 강의

전북 도민 누구나!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PART 01

수강방법

- ① 유튜브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검색 후 접속 가능
- ② QR 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PART 02

참여혜택

- ① 수강료 전액 무료
- ②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 ③ 7강 이상 수강 시 선물 증정

※ 이번 강좌는 실시간 강좌로 진행되므로 강좌 관련 수강생 모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SNS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온다라인문아카데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해당 강좌 포스터를 게시한 후, 인증샷을 센터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강사 및 강의 주제,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	일자	시간	강좌명 / 강사
1	8. 4.(수)	16시 18시	순국 그리고 비극적 죽음 /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2	8. 5.(목)		'의리(義理)'는 어떻게 '오리!'가 되어갔을까? -개항기 편 / 문경득(전주대 HK연구교수)
3	8. 11.(수)		서구 근대 심리학의 수용과 전파 / 이대승(전주대 HK연구교수)
4	8. 12.(목)		유교문화 전통과 한말의 자결 순국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5	8. 17.(화)		일본의 조선 침략과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 김동희(전주대 HK연구교수)
6	8. 18.(수)		열 사상과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 전종윤(전주대 HK교수)
7	8. 25.(수)		맹자(孟子)의 인민과 국가 / 오항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8	9. 1.(수)	17시-19시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와 문화 / 김창민(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9	-	-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랜선체험 I, II



랜선체험이란?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명 선발 후, 체험키트를 택배로 보내드리고 사진을 통해 진행되는 체험방식

[체험1]
문학체험 '작가 취재수첩,
길광편우(吉光片羽)'



[체험2]
'매듭인형, 알콩이와 콩심이'

※ 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침로303 전리관 212A호 | TEL 063) 220-3201-3, 3207
H.P www.jj.ac.kr/hk/ | E-MAIL jjondar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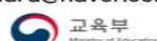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필선을 지낸 영 권주 최명희순화재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New Dawn” - 1900. 9. 9



구한말 한반도에 진입한 선교사들은 19세기 말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분할 협정에 따라 미국 남장로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할당(?)받고 선교에 전력을 기울인다.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 중 일부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 전주에 주목했다. 그들이 택한 선교 방식 중의 하나는 교육이었다.

레이놀드 목사의 집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자 첫 세례교인이었던 김창국을 학생으로 근대교육 기관이 문을 연다. 이것이 전주신흥학교의 시작이다. 김창국은 후일 목사로 대성하는데 그의 차남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詩 <가을의 기도> 쓴 김현승이다. 1908년에 기와집 8칸을 지어 어엿한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신흥학교로 정하니 이는 새 여명을 뜻하는 New Dawn의 한역이었다.

3·1 운동 당시 전주 남문시장에서 태극기를 배포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광주 학생 운동의 와중에도 신흥학교 출신과 재학생들의 활약은 눈부셨다고 한다. 식민 치하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신사참배 논란 때 일어난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쇄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1937년 일제 경찰들과 함께 전주신사에 줄맞추어 올랐던 전교생이 신사 앞에서 곳곳이 선채로 절을 거부했고 그 덕(?)에 신흥학교는 폐교된다.

신흥학교의 오래된 반골 기질은 오월 광주가 무참히 진압당했던 1980년 5월 27일에도 재연된다. 그 날, 신흥학교 학생 1천 5백여명은 계엄 철폐와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교문 밖으로는 수백 명의 계엄군이 총을 든 채 달려 왔고 장갑차가 정문을 향해 있었다.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간다면 그대로 피를 볼 판이었다. 교사들은 우리를 밟고 가라며 학생들을 막아섰고 학생들은 차마 교사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교내시위 후 해산한다. 그 후 신흥학교 학생들은 전주시내 곳곳에서 밤마다 광주학살규명 유인물을 뿌리며 공안기관을 괴롭히다 한 달여 만에 모두 검거된다. 이후에도 80~90년대 대학가에 수많은 학생운동 세포(?)들을 배출한다.(일설에 의하면 한강 이남에서 80년대 공안사범 최다 배출학교란 말도 있을 정도니...)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인민군 군악대는 신흥학교 교가를 연주한다. 물론 이것은 신흥학교 교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만주의 독립군들이 부르던 '용진가'였지만 그 곡조가 신흥학교 교가와 완전히 같았던 것이다. 그 노래가 1910년대에 이미 신흥학교 교가로 이 노래가 불리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니 그 역사 또한 깊고 깊은 사연이다.

121년 전 오늘인 1900년 9월 9일 전주 신흥학교의 역사가 한 사람의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